

# 순천시, '기업친화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 속도

## 기업 자금난 완화, 금융지원 확대 '기업지원포털' 운영해 정보 제공 순천경제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기업 유치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순천시가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금융비용 감경을 위해 이차지원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 기존 융자 한도를 3억원에서 최대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차 지원율을 3%에서 4%로 상향했다. 우대기업 범위도 기존의 여성, 장애인기업에서 청년, 향토기업까지 확대해 0.5%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어 전남 최초로 IBK기업은행,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수수료 1.2%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 모은 기업지원포털도 구축했다.

포털은 이날 정식 오픈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순천시 전략사업,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기업 및 제품 홍보, 기업에로 접수 규제신문고, 기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사이트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정보와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지원포털 구축으로 연관사업, 지원 제도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기업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정부 지원을 넘어 시 차원의 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하고, 지역과 기업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순천경제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 바 있다.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성장사다리 구축 △주력산업 부가가치 창출 △산업단지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체감형 업무 혁신 등 4대 분야로 나눠 총 37개 사업에 약 147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20년 이상된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육성해 인증서 및 환관을 수여하고,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차 지원, 관내 강소기업에 사업화 및 마케팅 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지역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과 지역특화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도 추진한다.

시는 민선 8기 현재까지 13개 기업을 유치해 1300억원의 투자유치와 1600여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2조원의 투자유치와 2000명 고용 창출이

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유지한 울촌제1산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발사체 단조립장이 오는 3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한화오션에코텍은 시설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지역 인재가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시는 보다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보강하고, 유치에서부터 실현 단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전담 PM(프로젝트매니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설 연휴 산림휴양시설 상시 개방 고흥군, 25일부터 2월2일까지

고흥군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2월2일까지 주요 산림휴양시설을 상시 개방·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과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올해 설 연휴부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자연휴양림,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거금생태숲 등 주요 산림휴양시설들이 상시 개방·운영되며, 방문객들에게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겨울철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화재 예방 대책도 철저히 점검했다. 설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 당직 근무자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고흥의 숲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뜻깊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팔영산 자연휴양림, 편백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에는 지난해 약 10만 명이 방문했으며 매년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흥=심정우 기자

##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장흥군, 연 1회 1인당 14만원

장흥군은 오는 2월3일부터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는 국·도·군비를 투입해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연 1회, 총 14만원을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신청 가능 인원은 3492명으로 발급기한은 오는 11월28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또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올해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유한 카드에 자동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는 오는 2월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누리집, 모바일 앱, ARS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연말까지 공연, 영화, 도서, 음반, 스포츠관광 등 문화·체육 문화체험 분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문화 소외계층에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해 문화격차를 완화하겠다"며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과 이용 안내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 LED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고흥 팔영대교

고흥군은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육상관문인 팔영대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2월 초 준공에 앞서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총 30억원 예산을 투입해 팔영대교(L=1.3km)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지난 20일 현장 설명회 및 연출 시연을 마쳤으며 설 명절을 맞아 고흥을 찾는 귀성객과 군 방문객에게 새로운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팔영대교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계절에 맞춰 자동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위기의 LED 조명을 연출한다.

주탑에는 우주, 유자 등 8가지 고흥의 이미지가 담긴 고보조명을 투광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고흥=심정우 기자

## 교통안전지킴이 서포터즈 모집 순천시, 2월7일까지

순천시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교통정책 홍보를 위해 '2025년 순천시 교통안전지킴이 서포터즈'를 오는 2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서포터즈는 2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활동하며,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3월17일 예정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안내를 위해, 2월과 3월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단체별로 맞춤형 활동 지역(교통취약지)을 지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캠페인이나 야간 교통사고 예방 활동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7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교통정책과(061-749-6367)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보성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보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을 포함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 참돔, 활 방어,

활 암컷 대게 등이다.

보성군은 수산물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 및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분들이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모든 업소들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 고흥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 대상자 모집

### 내달 7일까지 모집

고흥군은 (조)부모의 대를 이어 가업을 이어갈 청년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7일까지 모집한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은 (조)부모가 운영하는 농·수·축산업, 소상공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해 가업승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에 있고, (조)부모가 농·수·축산업,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가업승계를 받은 신청자 본인의 농·수·축산업, 소상공업 경력 이 승계받은 지 5년 이내인 청년이다.

사업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장 현장심사를 거친 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고흥군은 총 5명의 가업승계 청년 발굴을 목표로 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 농·수·축산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사업장 시설 개선, 경영·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차별화된 시책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른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